

# 흐뭇한 형·든든한 동생... 토트넘의 'K듀오'

루키 양민혁 팀 실내훈련장 등장  
손흥민 앞에서 본격적 몸 만들기  
내년 1월1일 정식으로 훈련 합류



잉글랜드 프로 축구 프리미어 리그(EPL) 토트넘 홋스퍼에 합류한 '루키 공격수' 양민혁(18)이 '캡틴' 손흥민(32)이 지켜보는 가운데 본격적인 몸 만들기에 들어갔다.

토트넘은 21일(한국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이번 여름에 계약한 양민혁이 '홋스퍼 웨이'에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라며 "지난달 K리그1 강원FC에서 이번 시즌을 마무리한 양민혁은 내년 1월1일 팀 합류를 앞두고 이번주 영국에 도착했다. 양민혁을 환영한다"라고 전했다.

토트넘은 훈련장인 '홋스퍼 웨이'의 실내 훈련장에서 양민혁이 웨이트 트레이닝하는 장면을 공개했다.

특히 양민혁보다 14세가 많은 '캡틴' 손흥민이 만발치에서 흐뭇한 표정으로 훈련 장면을 지켜보는 사진도 눈길을 끌었다.

양민혁은 2024년 K리그 최고의 셋발로 맹위를 떨쳤다.

이번 시즌 개막에 앞서 준프로 신분으로 강원FC에 합류한 뒤 뛰어난 활약으로 6개월 만에 프로 계약을 따낸 양민혁은 7월 토트넘 입단을 확정하며 팬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K리그1 38경기 전 경기에 출전한 양민



혁은 12골 6도움을 올리며 압도적인 지지로 '영플레이어상'을 받았다.

양민혁은 지난 16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영국 런던행 비행기를 타고 토트넘에 합류했다.

양민혁은 출국 직전 취재진과 만나 "설렘 반, 기대 반"이라며 "새벽에 토트넘 경기를 보고 오느라 잠을 잘 못 잤다"고 말했다.

양민혁은 그날 14세 차이 나는 대선배 손흥민과의 만남을 기대하는 눈치였다.

9월 A매치 소집 이후로 손흥민과 따로 연락을 주고받은 적은 없다는 양민혁은 "아직 손흥민 선수와 많이 만나보지도 못했고 형이라고 부르기도 아직 어려운데 부른다는 것 같다"며 "가서 좀 더 얘기를 나누고 친해진 후에 형이라고 부르려고 싶다"고 수줍게 말하기도 했다.

이어 "정말 영광스러울 것 같다. 얼른 빨리 가서 내 기량을 보여주고 같이 뛰고 싶다"며 "형한테 많이 배우고 더 열심히 할 테니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다"고 런던 도착 전 손흥민에게 먼저 말을 영상 편지도 남겼다.

스카이데일리·연합뉴스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 홋스퍼에 합류한 '루키 공격수' 양민혁(18)이 '캡틴' 손흥민(32)이 지켜보는 가운데 본격적인 몸 만들기에 들어갔다. 토트넘은 21일(한국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이번 여름에 계약한 양민혁이 '홋스퍼 웨이'에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라며 "지난달 K리그1 강원FC에서 이번 시즌을 마무리한 양민혁은 내년 1월1일 팀 합류를 앞두고 이번주 영국에 도착했다. 양민혁을 환영한다"라고 전했다.

토트넘 홈페이지 캡처

## 소토 농친 양키스 MVP 1루수 영입

골드슈미트와 1년 181억 계약

자유계약선수(FA) 최다어 후안 소토를 지역 라이벌 뉴욕



메츠에 뺏긴 미국프로야구(MLB) 뉴욕 양키스가 공격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MLB닷컴은 22일(한국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양키스가 1루수 폴 골드슈미트(37·사진)와 계약기간 1년, 총액 1250만 달러(약 181억2000만 원)에 계약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양키스는 2024시즌 주전 1루수로 뛰었던 앤서니 리조가 FA 자격을 얻으면서 새로운 1루수 자원을 찾았다. 당초 크리스천 워커가 영입 후보였으나 워커는 21일 휴스턴 애스트로스스와 3년 6000만 달러(870억 원)에 입단하기로 합의하면서 양키스는 방향을 틀었다.



골드슈미트는 통산 7차례 올스타에 선정됐고 골드글러브 4차례, 실버슬러거 5차례를 수상한 베테랑이다.

2020년엔 내셔널리그(NL) 최우수선수상(MVP)을 받았다.

골드슈미트는 올해에도 154경기에서 타율 0.245, 22홈런, 66타점의 성적을 올리며 건재를 과시했다. 다만 2024시즌 OPS(출루율+장타율) 0.716에 머물렀으며, 그가 OPS 0.800 이하의 성적을 낸 건 데뷔 후 처음이다.

양키스는 최근 왼손 선발 투수 맥스 프리드, 2019년 NL MVP 코디 벨런저, 밀워키 브루어스 마무리 투수 데빈 윌리엄스를 영입했고 골드슈미트마저 데려와 투타 전력 보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골드슈미트는 류현진(한화 이글스)의 '천적'으로 국내 야구팬들에게 익숙하다. 그는 지난해까지 MLB에서 뛰었던 류현진을 상대로 통산 상대 타율 0.426(26타수 11안타), 3홈런, 9타점을 기록했다.

## 우즈父子, PNC 챔피언십 첫날 59타 '공동 1위'

가족 팀 이벤트 대회서 5개월 만에 필드 복귀

허리 수술 후 휴식을 취했던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48·미국)가 아들 찰리 우즈(15)와 출전한 이벤트 대회 첫날 공동 1위에 올랐다.

우즈 부자(父子)는 22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드의 리츠-칼튼 골프클럽(파72)에서 열린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챔피언십의 이벤트 대회 PNC 챔피언십(총 상금 108만5000달러) 1라운드에서 보기 없이 버디 13개로 13언더파 59타를 합작했다.

두 사람은 베른하르트 랑거(독일)-제이슨 랑거, 비제이 싱(피지)-카스 싱 부자와 함께 공동 선두에 나섰다. 이 대회는 메이저대회 우승 경력자가 부모, 자녀 등 가족 한명과 팀을 이뤄 이틀 동안 36홀 스크램

블 방식(각자 샷을 친 뒤 더 잘 맞은 공을 골라 그 자리에서 다음 샷을 치는 방식)으로 우승을 가리는 친선 대회다. 우즈 부자는 이날 1-3번 홀에서 버디를 잡는 등 안정적인 플레이로 9번 홀까지 6언더파를 쳤다. 10번 홀에서 다시 버디를 잡은 우즈 부자는 12번 홀부터 16번 홀까지 5연속 버디 사냥에 성공하며 순위를 끌어올렸다. 우즈가 필드에 나선 건 7월 디오픈 이후 5개월 만이다. 고질적인 허리 통증과 여러 차례

수술 이력이 있는 우즈는 9월 요추 부위 신경 압박 문제로 다시 수술대에 오른 뒤 긴 휴식을 취했다.

우즈는 경기 출전 자체에 의미를 둔 듯 했다. 그는 라운

드 종료 후 중계방송사와 인터뷰에서 "이렇게 가족들과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돼 참 좋다"고 말했다. 우즈는 전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2021년 교통사고로 다쳤던) 다리 상테는 그대로고, 올해는 허리 때문에 고생했다"며 "(정규 대회에서) 경쟁력을 갖추기에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밝혔다.



복귀한 타이거 우즈(왼쪽)와 아들 찰리 우즈. AFP·연합뉴스

**Volvik**  
**CONDOR**  
TOUR PERFORMANCE PREMIUM URETHANE BALL